

치유의 빛 :

곽 수 근작전, 선 갤러리, 선 아트센터

재미화가인 곽 수는 미술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현대미술을 공부하고 결혼생활을 영위하며 창작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최근 2000 년에서 2003 년까지 3 년간 한국에서 잠시 지냈다. 고국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던 고향(항구 도시인 부산 출생. 1949)과 고국산천의 풍경과는 다른, 변화 된 한국의 현실과 실체를 맞닥뜨려 보게 되었다. 기억 속에 존재하던 한국과는 다른, 현실 속의 변화라도 그때까지 곽 수가 마음속에 지녀 온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곽 수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녀는 20 여년 동안 미국에서 함께 살아 온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존경과 함께, 어머니를 통한 근원적인 모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1970 년대 곽 수는 미술공부에 전념하고자 시카고 대학에 들어가서 미술석사 공부를 하였고 그녀가 속한 학교교육이 서양미술의 현대 미학분야로 경도되어 있었음에도 그녀는 작품표현기법과 창작모델을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예술기법, 즉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동양적 기법과 동양미학에 근거를 두었다. 70 년대에 미술을 공부하였기에 그 당시 미술재료와 창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중요시하는 교수들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서양현대미술과 추상미술의 미학에 관한 영향 속에서도 (전쟁 후의 유명한 미술평론가인 헤롤드 로젠버그의 평론을 공부하면서 잠시 동안 그의 지도를 받았다) 곽 수의 중국 미학에 대한 추구는 지속되었다.

곽 수의 한국 체류가 그녀의 최근 추상 작품에 동양적인 요소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가?
생동감 넘치는 화면, 춤추는 듯한 원의 군무와 궁형의 형태들, 질감이 강한 화면과 맑은
색상-어둡고 밝은 푸른 색, 오렌지와 노란색, 흰색과 검정색- 이런 작품들의 경향이
작가의 작품에서 고향의 특색, 동양적인 특색이 강화되었음을 말해주는가?

언뜻 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이다. 곽 수의 회화적인 어법은 현재
동시대의 생기발랄하고 생명력 넘치는 추상스타일 작품,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머레이(Elizabeth Murray), 메리 헤일만(Mary Heilman) 같은 작가들의 작품들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곽 수의 작품들을 자세히 감상하면 그 작품들의 깊이 있는 구조의 복합성에
감명받지 않을 수 없다. 곽 수는 자주 화면을 자르고 꺾매고, 형상과 여백이 잘려 나오고
다시 캔버스에 그 뒤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잘라진 부분의 밑에 있는 나무
액자 받침대를 보여주기도 한다. 화면이 평행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조각들로
분해되었고 낚시줄로 표면에 있는 것들의 조각을 꺾매기도 한다. 이러한 곽 수의
창작기법이 서양 모더니즘 역사에서 전혀 낯선 것은 아니나, 이런 기법에 가까운 작품
창작활동을 한 화가로는 50,60 년대에 화면을 자르고 찌르는 창작을 한 이탈리아 화가인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만을 떠올릴 수 있다. 곽 수는 이 작가의 작품을 본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팍 수의 창작과정에서 보이는 추상성이 영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그녀의 작품들의 명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소호에 있는 존 켈리 화랑(June Kelly Gallery)에서 전시하는 작품들의 명제는 모두가 “치유의 빛”이라고 되어 있다. 팍 수의 치유라는 단어의 사용은 아시아적인 치유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니, 그것은 참된 치유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그녀의 작품에 나오는 자연적인 근원으로서 보이는 빛은 해와 달 (작품에 보이는 원의 형태들)이지만, 또한 그것은 영적인 힘, 인간 본연의 생명적인 에너지의 기반이기도 하고 은유적으로 세상의 빛, 인도하는 빛, 하나님의 현존 등을 표현하고 있다. 자연에 근거를 두고 달, 물, 파도, 무지개 등에 대한 기억에서 작품의 영감을 받아서 창작한 일련의 “치유의 빛” 작품들은 은유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

작품 구상의 아이디어는 자연에서 받았어도 그 작품들은 어떤 특정한 자연을 묘사한 것이 아닌 그녀가 창조해내는 공간에 대한 신비스러운 다른 차원이 있다. 그것은 어떤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빈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화면의 한 구멍, 화면의 부분이 잘라져 나가고 없는 것, 베어진 것, 형상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이런 빈 공간들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 팍 수 작품의 긍정적인 면이다.

나에게 있어 팍 수 작품의 경탄할 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종이접기, 바느질, 조각천의 활용(조각보), 상처를 꿰매는 것 같은 상식적인 행위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아이디어를 작품화시킨 점이다. 부산 바다를 상기시키는 푸른 색의 “치유의 빛#3”의

오른쪽 원은 그 둘레를 칼로 찢고 난 후, 다시 낚시줄로 꿰매었다. 작품에 보이는 각 요소들(창작 재료 자체나 재료의 배합 과정)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자연의 한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팍 수는 작품 창작의 모든 과정과 각 요소들의 생명력을 믿는다. 또한 그 생명력은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믿는다. 팍 수의 작품들은 창작하는 행위와 그것을 감상하는 행위 모두를 통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스스만 (뉴욕 휘트니 미술관 큐레이터)

Elizabeth Sussman (Curator, Whitney Museum of Art, New York)